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purchase intension of individual pens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Chanhee Lee^a · Hongjoo Jung^{a,1}

^aCollege of Economics/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8, 2015; Revise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7, 2016)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which have a growing importance as a financial means after retirement. For this purpo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survey data ($N = 928$) was conducted to analyze psychologic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in the case of non-subscribers of individual pensions, potential longevity and coping efficac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fully mediated by fear and worry about longevity. Trust in insurers and risk tolerance directl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These show that trust in insur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Also, only trust in insurers give a direct impact on individual pensions in the case of individual pension subscribers. Longevity-related emotional side is expected to help in marketing activities that target potential customers signing individual pensions. In addition, trust in insurers has the greatest impact on new and additional subscriptions that represent critical efforts to improve trust in insurers.

Keywords: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individual pension, potential longevity, coping efficacy, trust

1. 서론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백세장수는 실현되고 있으나, 노후에 필요한 재정문제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자신의 노후준비에 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준비를 평가해 보라는 질문에 49.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은퇴이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3층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의 축소, 기금의 고갈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적연금으로 기업연금은 낮은 가입률, 높은 중도해지율 등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은퇴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활용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Lee와 Lim, 2013).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인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이는 20세-60세 인구(약 3천만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¹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ro 25-2, Jongno-Gu, Seoul 03063, Korea. E-mail: jungprokorea@gmail.com

또한 노후대비 재무수단 중에서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대비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의 가입의향에 대해 은행 예·적금(8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후근로소득(63.8%), 공적연금(56.1%),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5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Jeon 등, 2014). 그리고 은퇴 이후 연금소득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 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의향은 26.4%로 높지 않다 (Kiri, 2015).

개인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대비 재무수단 중에서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람의 재무행동은 경제요인보다 심리요인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Fischhoff 등, 1978) 개인연금의 가입의향과 심리요인의 관계를 살펴 볼 가치가 있다.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재무적 요인을 분석하거나 (Baek, 2012; Brown, 2001; Cappelletti 등, 2011; Park, 2011), 개인연금 가입의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Brown, 2001; Inkamann 등, 2011; Kim과 Kim, 2013; Lee와 Jung, 2013; Song, 2009), 개인연금 가입의향과 금융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Lee와 Jung, 2013)가 수행되었다.

개인연금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요인을 밝힌 Lee와 Jung (2013)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하나의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요인으로서 감정은 보험료의 지불규모에 영향을 주고 (Hsee와 Kunreuther, 2000), 국가신뢰가 위험인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Lee와 Lee, 2011) 입증되었으나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요인과 금융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개인연금 가입의향과 선호

개인연금은 퇴직 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재무적 요인을 밝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Baek, 2012; Cappelletti 등, 2011; Park, 2011), 결혼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 (Baek, 2012; Brown, 2001). 재무적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자산, 주택보유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Park, 2011) 반대의 결과도 있다 (Cappelletti 등, 2011). 그 외에도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경우,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인 경우 개인연금의 신규가입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Jeon 등, 2006).

심리요인과 개인연금의 가입의향 또는 선호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장수 가능성 또는 기대여명은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Brown, 2001; Inkamann 등, 2011; Song, 2009). 그리고 장수에 대한 걱정과 보험사 신뢰가 개인연금 신규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보험사 신뢰가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Lee와 Jung, 2013).

한편 개인연금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금융요인을 밝힌 연구에는 위험감수성향이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Lee와 Jung, 20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재무적 요인, 심리요인, 금융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다양한 심리요인과 금융요인을 변수로 하여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미가입자의 신규가입

의향과 개인연금 기가입자의 추가가입 의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심리요인

감정(affect)은 외부자극에 대한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느낌이며, 특정자극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구분해준다 (Finucane 등, 2003). 감정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과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한 그 자극에 대해 여러 가지 심상(imagery)으로 반응을 한다 (Lee와 Lee, 2005). 심상은 단어연상기법(word associ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단어로 된 표적 자극을 제시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연상단어들을 기재한 후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감정은 구매의도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보험목적물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보험구매의도를 높이고 (Hsee와 Kunreuther, 2000), 나노식품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위험을 낮게 인식하여 구매의도가 높아진다 (Siegrist 등, 2007).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dread risk)과 위험에 대한 지식(unknown risk)의 두 심리적 차원에 의해 위험인식이 이루어진다 (Slovic 등, 1987). 그리고 두려움(fear), 걱정(worry) 등과 같은 정서요인 뿐만 아니라 대처효용성(coping efficacy), 지식 등과 같은 인지요인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장수에 따른 노후대비의 걱정이 다양한 노후생활 자금원 중에서 개인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Jung, 2013). 또한 테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개인의 행동반응을 증가시키고, 테러의 발생 가능성, 대처효용성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Lee와 Lee, 2011).

지식(knowledge)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축적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객관적 지식과 상품에 대한 친숙성과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정도로 상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소비자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Park과 Lessing, 1981). 지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내포하고 있는 주관적 지식이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Park과 Lessing, 1981).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ershey와 Mowen (2000)은 2문항(은퇴 후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총 금액,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저축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 Choi와 Lee (2005)는 기대수명(본인 연령대의 기대수명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신뢰(trust)는 상대방을 모니터하거나 통제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을 기꺼이 놓는 상태이다 (Mayer 등, 1995).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Jung과 Oh (2005)은 보험업의 신뢰 결정요인으로 정직성, 공신력, 배려를 제시하였고, Nam과 Cho (2005)는 생명보험업의 신뢰 구축요인을 기업이미지, 기업의 정체성,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다. Park (2010)은 저축은행의 결정요인으로 전문성, 안전성, 명성, 수익성과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자 신뢰는 손해보험 재가입, 개인연금의 선호결정에 영향을 준다 (Lee와 Jung, 2013; Nam과 Cho, 2008).

국가신뢰는 위험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과학기술 재해에 대한 위험인식에 중요한 요인이다 (Lee와 Lee, 2011). 테러에 대한 정부신뢰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Lee와 Lee, 2011). 또한 장수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신뢰는 개인연금의 가입과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Lee, 2014).

한편 Lee와 Lee (2011)는 테러위험지각의 인지-사회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매개로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위험인식과 개인행동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장수에 대한 정서요인(감정, 두려움, 걱정), 인지요인(발생가능성, 대처효용성, 지식), 사회요인(국가신뢰, 보험사 신뢰)이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금융요인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0). 금융이해력이 연금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개인연금 선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Cappelletti 등, 2011; Lee와 Jung, 2013). 또한 베이비부머의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Lusardi와 Mitchell, 2007).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Campell 등 (2011)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금융이해도를 3문항(이자수익 계산, 금리와 인플레이션 비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수익 비교)으로 측정하였다.

위험감수성향(risk tolerance)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위험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Jeong과 Kim, 2004). 위험감수성향은 타당성이 입증된 한 가지 문항으로 측정가능한데 (Grable과 Lytton, 2001) 이는 미국의 대표적 가구패널인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등의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위험감수성향과 개인연금 가입과의 관계에서 위험회피성향이 연금선택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 (Brown, 2001; Lee과 Jung, 2013)과 반대의 연구결과 (Joo, 2011)가 혼재되어 있다.

이상의 기존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선호에 금융이해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위험감수성향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이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단편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하나의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해 정서요인, 인지요인, 사회요인, 금융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개인연금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 장수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효용성, 국가신뢰는 장수정서를 매개로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보험사에 대한 신뢰, 장수관련 주관적 지식, 금융관련 객관적 지식, 위험회 피성향은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은 Figure 3.1과 같다.

3.2. 분석방법

연구대상은 2010년 인구센서스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을 택하였다. 2013년 4-5월 전국 7대도시에 거주하는 21세-59세까지의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928개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 등의 수도권 464명(50.0%), 부산권 313명(33.7%), 대구권 66명(7.1%), 대전권 49명(5.3%), 광주권 35명(3.9%)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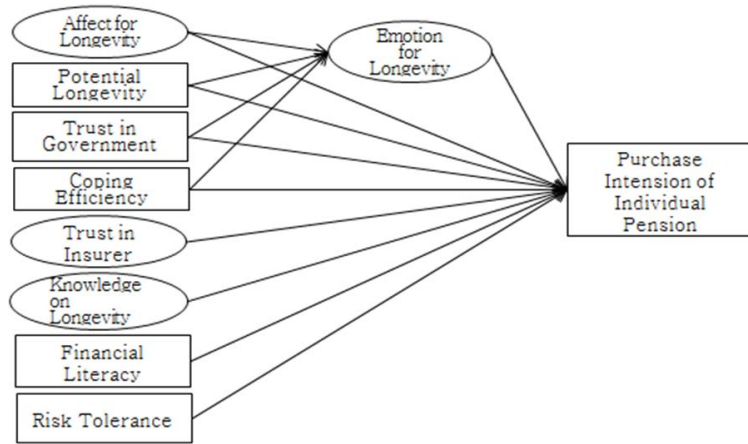


Figure 3.1. Research model.

설문지는 장수에 대해 정서요인(장수감정, 장수정서), 인지요인(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장수지식), 사회요인(국가신뢰, 보험사신뢰), 금융요인(금융이해력, 위험감수성향) 및 개인연금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Baek (2011), Park (2008)을 참고하여 6가지 재무수단(국민연금(기타 공적연금 포함), 개인연금, 예금·적금, 퇴직(연)금, 주식·펀드, 부동산)을 제시하고 ‘향후 노후대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가입(투자) 또는 추가가입(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선호하는 순서(6: 가장 선호, 1: 전혀 선호하지 않음)’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장수에 대한 감정은 Lee와 Lee (2005)에서와 같이 응답자에게 ‘장수’를 자극 단어로 제시하고 연상되는 두 개의 단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각 심상을 긍정과 부정 차원(-3: 매우 부정적, +3: 매우 긍정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균점수가 0 미만까지는 부정적 감정, 0을 초과한 경우는 긍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장수정서는 Lee와 Lee (2011)에 근거하여 ‘장수가 어느 정도 두려운가’를 리커드 7점 척도(1점: 전혀 두렵지 않음, 7점: 매우 두려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장수에 대한 걱정은 ‘장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걱정하는가’를 리커드 7점 척도(1점: 전혀 걱정하지 않음, 7점: 매우 걱정함)로 평가하였다.

장수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Lee와 Lee (2011)에서 제시된 요인 중에서 가능성, 대처효용성을 선정하였다. 가능성은 ‘장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대처효용성은 ‘장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가능성(1점: 매우 낮음, 7점: 매우 높음)과 대처효용성(1점: 전혀 대처할 수 없음, 7점: 아주 잘 대처할 수 있음)은 리커드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노후대비 지식은 Choi와 Lee (2005)와 같이 재무지식에 대한 질문(‘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와 ‘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한 달 평균 어느 정도를 저금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과 기대수명에 대한 질문(‘귀하 연령대의 기대수명이 몇 세인지 알고 있는가’)을 추가하여 리커드 7점 척도(1점: 전혀 모름, 7점: 매우 잘 알고 있음)로 측정하였다.

국가 신뢰는 Lee와 Lee (2011)를 참고하여 ‘국가가 장수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가’를 리커드 7점 척도(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7점: 매우 신뢰)로 평가하였다.

보험사 신뢰는 Nam과 Cho (2005), Park (2010), Jung과 Oh (2005)가 제시한 기업이미지, 정직성, 수익성을 선정하였다. 기업이미지는 ‘보험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정직성은 ‘보험사

가 어느 정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수익성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리커트 7점 척도(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7점: 매우 신뢰)로 평가하였다. 대상 금융기관은 제시된 노후대비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하였다.

금융이해력은 Campbell 등 (2011)에서 사용한 질문을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로 수정하였다. ‘예금계좌에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금리가 연 2%라면, 5년 후 당신의 예금계좌에 얼마인가’, ‘예금계좌 금리가 연 1%이고, 인플레이션이 연 2%라고 가정하면, 1년 후 예금계좌의 돈의 가치는’, ‘직접투자(본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간접투자(금융기관의 펀드에 투자)보다 더 안전한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정답의 개수로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으며, 만일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은 틀린 답으로 간주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Grable과 Lytton (2001)에서의 단일척도사용방법을 이용하여 저축 또는 투자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일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위험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고위험추구집단,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평균 이상의 위험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추구집단, ‘평균 정도 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평균정도 위험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중립집단, ‘어떠한 금융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회피집단으로 구분한다. 고위험추구집단은 위험감수성향이 가장 높고, 위험회피집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정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나의 모형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계량적으로 관찰한 측정지표 간의 상관행렬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LISREL),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COSAN), reticular action model(RAM), equations(EQS) 모형 등이 있는데, 표현방법상 차이가 있으나 각 모형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Chun, 2013).

구조방정식을 활용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Hong, 2000). 첫째, 측정변수의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측정변수만을 고려한 모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둘째, 매개변수의 역할을 검정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변수는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반면,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매개변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셋째,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 연구자는 개발한 이론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여 그 모형을 타당한 모형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정할 수 있다.

4. 연구방법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4.1의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재무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55.3%로 여성보다 더 많았고, 연령평균은 39.3세이었다. 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77.3%, 주택보유자가 56.6%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졸 이상이 65.4%, 사무관리직 종사자가 44.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혼자가 67.6%, 자녀 1명 이상인 경우가 89.7%를 차지하고 있다.

4.2. 측정항목 평가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서요인과 인지요인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2에서와 같이 C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모든 척도가 전반적으로 수용

Table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928$)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513	55.3
	female	415	44.7
Age	20s	135	14.0
	30s	356	36.8
	40s	292	30.2
	50s	145	15.0
Monthly household income (mil. KRW)	under 2	170	18.3
	2-3	250	26.9
	3-5	297	32.0
	5-7	121	13.0
	over 7	90	9.7
Housing pattern	own house	525	56.6
	rental house	403	43.4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e	127	13.7
	two-year college graduate	194	20.9
	university graduate	480	51.7
	over graduate school	127	13.7
Occupation	clerks, manager	411	44.3
	self-employed, manufactor, technician	81	8.7
	professional	115	12.4
	sales & service	103	11.1
	public official	120	12.9
	housewife, others	98	10.6
Marital status	married	627	67.6
	single	301	32.4
Children	none	60	9.6
	more than one	567	90.4

Table 4.2. Verification results of the internal consistency

Factors	Variables	Cronbach's α
Affect for Longevity	Affect 1	.648
	Affect 2	
Emotion for Longevity	Fear	.632
	Worry	
Trust in Insurer	Image	.819
	Honesty	
	Expected Profitability	
Knowledge on Longevity	Life Expectancy	.820
	Necessary Fund for Living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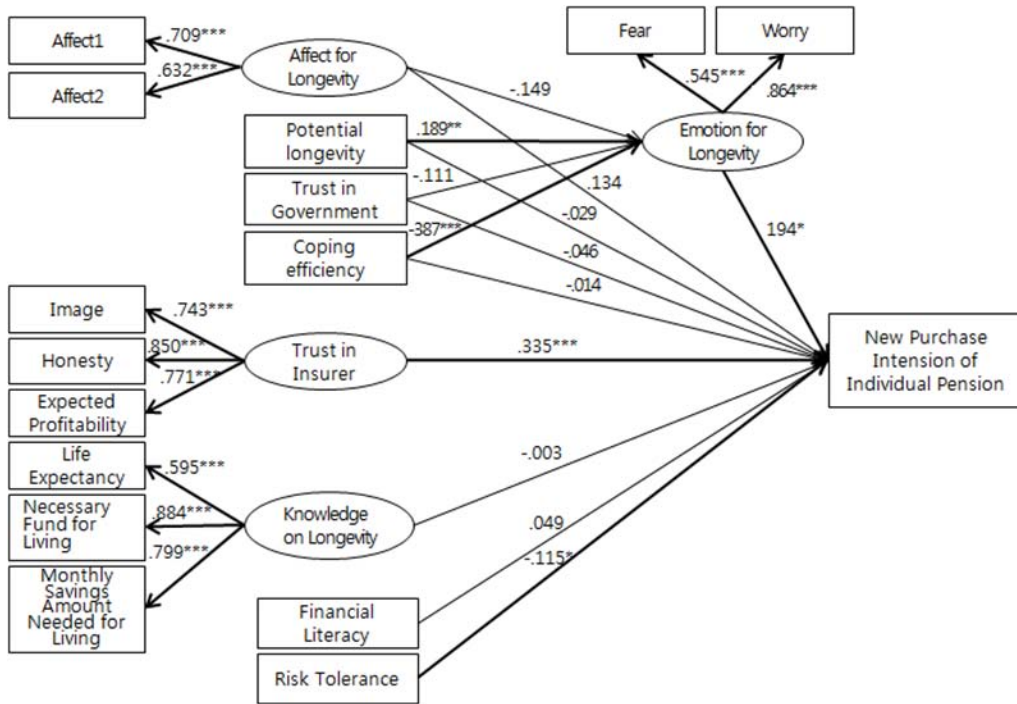
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측정 항목들 간의 판별 타당성의 충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퇴저축과 은퇴자금은 .755, 보험사의 정직성과 이미지는 .652, 보험사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이미지는 .61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3).

Table 4.3. Correlations between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Affect1	1.0														
2. Affect2	.481*	1.0													
3. Potential longevity	.109**	.093**	1.0												
4. Trust in government	.161**	.159**	.129**	1.0											
5. Coping efficacy	.160***	.152**	.194**	.243**	1.0										
6. Image	.059	.037	.112**	.152**	.069*	1.0									
7. Honesty	.079*	.083*	.119**	.170**	.101**	.652**	1.0								
8. Expected profitability	.052	.027	.080*	.154**	.058	.538**	.616**	1.0							
9. Life expectancy	.069*	.035	.186**	.133**	.182**	.095**	.105**	.072*	1.0						
10. Necessary fund for living	.032	.043	.095**	.049	.198**	.080*	.076*	.049	.559**	1.0					
11.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038	.048	.065*	.093**	.194	.102**	.097**	.069*	.508**	.755**	1.0				
12. Financial literacy	.007	-.025	.084*	.013	.094**	.009	.017	.022	.101**	.092*	.036	1.0			
13. Risk tolerance	-.012	.010	.065*	.057	.172**	.027	.034	.057	.067*	.117**	.092**	.143**	1.0		
14. Fear	-.235**	-.232**	-.057	-.151**	-.218**	-.085*	-.043	-.055	.025	.024	.001	-.016	.018	1.0	
15. Worry	-.149**	-.213**	.029	-.198**	-.427**	-.025	-.066*	-.025	-.020	-.036	-.059	-.019	.105**	.464**	1.0
M	5.04	4.63	4.34	2.77	4.12	3.62	3.13	3.22	4.09	4.30	3.95	1.90	2.73	3.98	4.93
SD	1.63	1.69	1.14	1.28	1.20	1.30	1.23	1.23	1.65	1.53	1.54	0.91	0.79	1.50	1.54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Figure 4.1.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preference of new purchase of Individual pension.

Table 4.4. Fitness index of proposed model

Model	χ^2	df	p-value	NFI	TLI	CFI	RMSEA
Proposed	148.870	91	.000	.883	.934	.950	.043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r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4.3.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결정요인

4.3.1.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규가입의향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409명 (44.1%) 중에서 향후 개인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44명(37.1%)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개인연금 미(未)가입자가 신규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개인연금의 신규가입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적합모형은 Figure 4.1과 같다.

Table 4.4는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를 보여준다. $\chi^2 = 148.870$, $NFI = .883$, $TLI = .934$, $CFI = .950$, $RMSEA = .043$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FI (normed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가 .80이상으로 양호하며,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이하로 제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5). 첫째, 통계적 유의수준 0.06에서 장수에 대한 감정은 장수정서를 완전매개로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장수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장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고($\beta = -.149$,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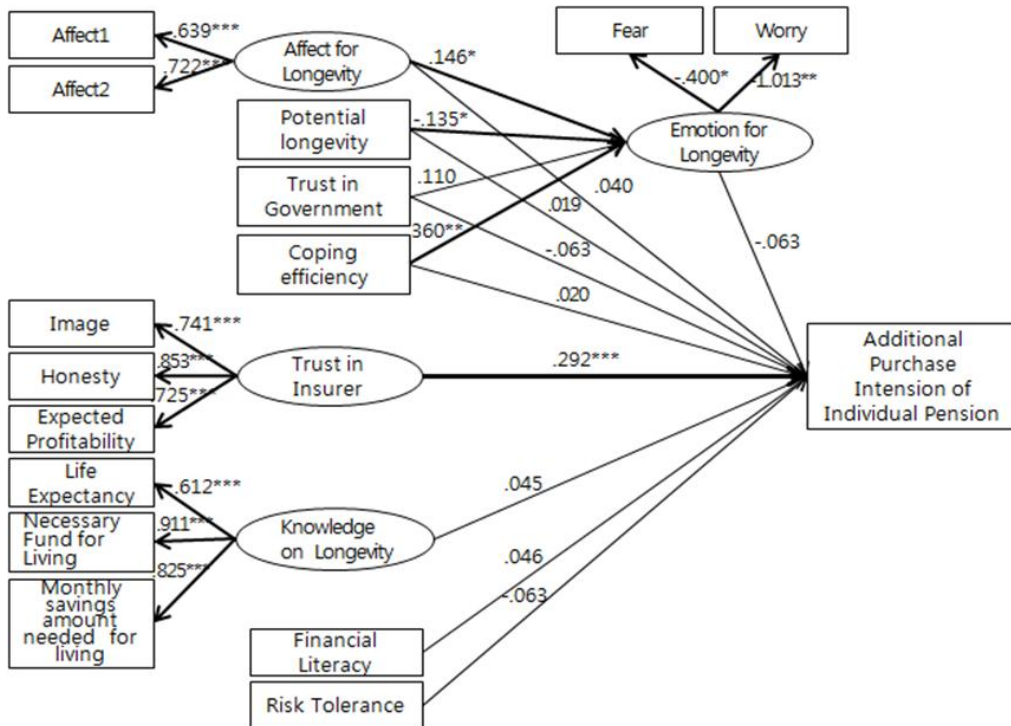
Table 4.5. Parameter estimates of the model

	Path		β	S.E.	C.R.
Affect for longevity	->		-.149	.089	-1.912
Potential longevity	->	Emotion for longevity	.189**	.060	3.279
Trust in government	->		-.111	.058	-1.882
Coping efficacy	->		-.387***	.065	-6.248
Fear	->	Emotion for longevity	.545***	.114	5.362
Worry	->		.864***		
Affect1	->	Affect for longevity	.709***	.246	4.368
Affect2	->		.632***		
Image	->	Trust in insurer	.743***	.075	12.989
Honesty	->		.850***	.083	13.671
Expected profitability	->		.771***		
Life expectancy	->	Knowledge on longevity	.595***	.073	10.765
Necessary fund for living	->		.884***	.090	12.136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		.799***		
Affect for longevity	->		.134	.098	1.867
Emotion for longevity	->		.194*	.093	2.478
Potential longevity	->		-.029	.066	-.545
Trust in government	->	New purchase intension of individual pension	-.046	.063	-.853
Coping efficacy	->		-.014	.078	-.227
Trust in insurer	->		.335***	.090	5.900
Knowledge on longevity	->		-.003	.066	-.057
Financial literacy	->		.049	.080	.983
Risk tolerance	->		-.115*	.093	-2.303

* $p < 0.05$, ** $p < 0.01$, *** $p < 0.001$.

056), 두려움과 걱정은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beta = .194, p < .05$). 그리고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장수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장수정서를 완전매개로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장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beta = .189, p < .01$), 두려움과 걱정이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장수에 따른 재정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장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beta = -.387, p < .001$), 두려움과 걱정이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국가신뢰는 장수에 대한 정서를 매개로 하여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beta = -.111, p = .060$) 장수정서의 매개성은 기각되었다. 또한 장수감정($\beta = .134, p = .062$), 장수가능성($\beta = -.029, p = .586$), 국가신뢰($\beta = -.046, p = .394$), 대처효용성($\beta = -.014, p = .821$)은 직접적으로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둘째,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보험사 신뢰와 위험감수성향은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보험사가 정직하다고 믿을수록,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을 믿을수록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5, p < .001$).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 = -.115, p < .05$). 하지만 노후대비지식은 개인연금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beta = -.003, p = .955$), 금융이해력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beta = .049, p = .326$)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p < 0.05$, ** $p < 0.01$, *** $p < 0.001$

Figure 4.2.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preference of additional purchase of individual pension.

Table 4.6. Fitness index of proposed model

Model	χ^2	df	p-value	NFI	TLI	CFI	RMSEA
Proposed	173.696	89	.000	.925	.948	.961	.039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r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4.3.2. 개인연금 기가입자의 추가가입의향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519명(55.9%) 중에서 향후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31.9%)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적합모형은 Figure 4.2와 같다.

Table 4.6은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를 보여준다. $\chi^2 = 173.696$, NFI = .925, TLI = .948, CFI = .961, RMSEA = .03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FI, TLI, CFI가 .90이상을 매우 양호하며, RMSEA < .05이하로 제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첫째,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은 장수에 따른 두려움과 걱정, 즉 장수정서에 영향을 주었지만, 장수정서는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3, p = .198$). 다시 말해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대한 장수정서의 매개성 역할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국가신뢰도 장수에 대한 정서를 매개로 하여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Table 4.7. Parameter estimates of the model

	Path		β	S.E.	C.R.
Affect for longevity	- >		.146*	.650	2.142
Potential longevity	- >	Emotion for longevity	-.135*	.579	-2.323
Trust in government	- >		.110		
Coping efficacy	- >		.360**	1.324	2.731
Fear	- >	Emotion for longevity	-.400*	.020	-3.037
Worry	- >		-1.013**	.042	10.826
Affect1	- >	Affect for longevity	.639***	.180	4.741
Affect2	- >		.722***		
Image	- >	Trust in insurer	.741***	.064	16.534
Honesty	- >		.853***	.069	17.018
Expected profitability	- >		.725***		
Life expectancy	- >	Knowledge on longevity	.612***	.048	15.981
Necessary fund for living	- >		.911***	.055	19.677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 >		.825***		
Affect for longevity	- >	New purchase intension of individual pension	.040	.058	.828
Emotion for longevity	- >		-.063	.006	-1.286
Potential longevity	- >		-.019	.049	-.477
Trust in government	- >		-.063	.046	-1.571
Coping efficacy	- >		.020	.056	.446
Trust in insurer	- >		.292***	.072	6.633
Knowledge on longevity	- >		.045	.047	1.080
Financial literacy	- >		.046	.060	1.213
Risk tolerance	- >		-.063	.075	-1.624

* $p < 0.05$, ** $p < 0.01$, *** $p < 0.001$.

.110, $p = .202$). 또한 장수감정($\beta = .040, p = .408$), 장수가능성($\beta = -.019, p = .633$), 국가신뢰($\beta = -.063, p = .116$), 대처효용성($\beta = .020, p = .656$)은 직접적으로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둘째,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보험사 신뢰는 직접적으로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보험사가 정직하다고 믿을수록,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을 믿을수록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beta = .292, p < .001$). 그러나 장수관련 주관적 지식($\beta = .045, p = .280$), 금융관련 객관적 지식($\beta = .046, p = .225$), 위험회피성향($\beta = -.063, p = .104$)은 직접적으로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개인연금 미가입자와 기가입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심리요인과 금융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채택한 심리요인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장수감정과 국가신뢰를 추가하여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장수정서를 완전매개로 하여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규가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장수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장수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장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금융요인으로는 위험감수성향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심리변수로 추가한 장수에 대한 감정과 국가신뢰는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개인연금 기가입자의 추가가입의향에는 보험사 신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 정직성, 기대수익률을 신뢰할수록 개인연금 추가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마케팅 활동 등에 몇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보험사 신뢰가 여러 노후대비 재무수단 중에서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사의 이미지, 정직성, 기대수익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현재 개인연금의 가입여부에 따라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장수에 따른 두려움과 걱정이 커질 것이며, 이는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무적 은퇴대비가 되어 있어 장수에 따른 두려움과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개인연금의 추가가입의향에 보험사 신뢰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잠재고객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화법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장수가능성이 장수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완전매개로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연금시장에서 역선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연금의 가입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장수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aek, E. Y. (2011). Determinant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7**, 357-383.
- Baek, E. Y. (2012). An analysis of individual annuity purchasing intens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 64-83.
- Brown, J. R. (2001). Private pensions, mortality risk, and the decision to annuitiz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 29-62.
- Campbell, J., Jackson, E., Madrain, B., and Tufano, P. (2011).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 94.
- Cappelletti, G., Guazzarotti, G., and Tommasino, P. (2011). *What determines annuity demand at retirement?*, (Working paper), *Bank of Italy*, #805, 1-38.
- Choi, H. and Lee, Y. (2005). Research on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amo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based on Socio-Psycho paradig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 415-435.
- Chun, H. (2013). Employees' satisfaction effect analysis using partial least square(PLS) structural equation

-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 747–756.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0).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Results of Financial Literacy in 2010.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Plan of Private Pension Activation, Aug., 5, 2015 press release.
- Finucane, M. L., Peters, E., and Slovic, P. (2003).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The dance of affect and reason*, In S. L., Schneider & J. Shanteau(Eds.), *Emerging Perspectives on Judgement and Decision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and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Policy Science*, **9**, 127–152.
- Grable, J. E. and Lytton, R. H. (2001). Assessing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F risk tolerance question,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2**, 43–52.
- Hershey, D. A. and Mowen, J. C. (200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0**, 687–697.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see, C. K. and Kunreuther, H. C. (2000). The affection effect in insurance decision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0**, 141–159.
- Inkamann, J., Lopes, P., and Michaellides, A. (2011). How deep is the annuity market participation puzzle?,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 279–319.
- Jeon, S. H., Lim, B. I., and Kang, S. H. (2006). An analysis on both determinants of purchasing the private pension and changes in the status of subscribers, *Insurance Development Studies*, **17**, 138–163.
- Jeon, Y. S., Byun, H. W., Chung, W. S., Park, S., Oh, S., Lee, S. W., and Choi, W. (2014). Insurance consumer questionnaire survey in 2014, Kiri Report.
- Jeong, W. and Kim, K. (2004).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financial risk component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5–9.
- Joo, S. H. (2011). Factors related to private pension product investment: including bequest mot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2**, 183–200.
- Jung, H. and Oh, T. H. (2005). An empirical study on the trust and determination factors of trust in the insurance industry, *Korean Insurance Journal*, **71**, 49–73.
- Kim, H. and Kim, J. (2013). The effect of casting method and regulatory mode on annuity insurance purchasing inten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4**, 51–73.
- Kiri (2015). Insurance consumer questionnaire survey in 2015, Kiri Report.
- Lee, C. (2014). *An empirical analysis of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purchasing financial means for retirement preparation*, Ph.D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C. and Jung, H. (2013).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purchase and preference of the individual pension: focusing on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financial literacy, trust and risk tolerance, *Journal of Money & Finance*, **27**, 25–51.
- Lee, H. J. and Lee, Y. A. (2011). A cognitive-social model for risk perception of terroris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7**, 486–496.
- Lee, Y. A. and Lee, N. K. (2005). Psychological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 200.
- Lee, Y. H. and Lim, B. I. (2013). *Studies on the role and development of private pension as the supplement scheme of national pension*, Policy Report,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Lusardi, A. and Mitchell, O. S.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 205–224.
-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Nam, S. and Cho, M. K. (2005). Measures to enhance the social reliability of life insurance industry, *Life Insurance*, 16–36.
- Nam, S. and Cho, Y.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cyholder's trust for the non-life insurance company, *Korean Insurance Journal*, **79**, 195–220.
- Park, C. J. (2008). Type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by ag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 139–166.

- Park, C. J. (2011). Factors affecting private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baby boomers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7**, 328–344.
- Park, C. W. and Lessing, V. P. (1981).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decision biases and heuristic,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223–230.
- Park, T. Y.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reliability of saving bank on transaction intention, Ph.D Thesis of Hoseo University.
- Siegrist, M., Cousin, M-E., Kastenholz, H., and Wiek, A. (2007). Public acceptance of nanotechnology foods and foods packing: the influence of affect and trust, *Appetite*, **49**, 459–465.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ong, Y. A. (2009). *Determinants of purchase of the private annuities and vitalization plan*,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KIRI Weekly.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이찬희^a · 정홍주^{a,1}

^a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경영학부

(2015년 12월 8일 접수, 2016년 3월 2일 수정, 2016년 3월 7일 채택)

요약

본 연구는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수단 중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대도시에 거주하는 92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규가입의향에 있어 장수에 대한 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장수에 대한 정서인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매개로 하여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사 신뢰와 위험감수 성향은 직접적으로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며, 특히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대하여 보험사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연금 기가입자의 추가가입의향에 있어서는 보험사 신뢰만이 개인연금 추가 가입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수 관련 정서적 측면이 개인연금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 신뢰가 미래의 개인연금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추가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구조방정식모형(SEM), 개인연금,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신뢰

¹교신저자: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E-mail: jungprokorea@gmail.com